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임 영 자 · 김 선 영*

세종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과 교수 ·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의상전공 박사과정*

A Study of New Orientalism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Young-Ja Lim · Sun-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Professor of Se-Jong Univ
Dept. of Home Economics, Doctoral course of Se-Jong Univ*

ABSTRACT

In this study, New Orientalism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is defined a new idea that harmonized with factors of eclecticism, traditionalism, naturalism, and futurism and these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First, as these features, it is the phenomenon of eclecticism presented beyond regions and sex. Second, it is the phenomenon of traditionalism newly expressed traditional images in a modern sense by using and changing of a oriental dress image of the of the past. Third, it is the phenomenon of naturalism revealed an unalloyed recurrent instinct about nature and a desire for yearning. Fourth, it is the phenomenon of futurism which is come out the factor of oriental images within a minimal and cyber environment.

This paper might be the foundation for Korean Orientalism which could be not a just pastiche but a cultural commodity and s main fashion current with a cultural identity especially in the year of 2000, "New Arts Year", declared by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Key Words : new orientalism, eclecticism, traditionalism, naturalism, futurism

뉴 오리엔탈리즘, 절충주의, 전통주의, 자연주의, 미래주의

I. 서 론

오늘날 사회문화는 산업사회의 획일성을 탈피하

고 다양화된 생활 방식과 개성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초정보화 사회로 변모되고 있으며,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그 어느시

* 이 논문은 1999년 BK21 핵심분야 연구비에 의해 연구한 것임.

대보다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의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복식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양식과 이미지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시도되고 있고, 종합하여 재배치하려는 표현기법이 현대 복식의 중요한 표현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발흥한 포스트 모던의 문화 인식론은 타문화권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방식을 갖는데 기여했고 산업사회가 빚어낸 위기감의 해결방안으로 동양적 세계관이 크게 주목받게 되어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동양 문물이 새로운 감각으로 서구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이는 영화매체에도 반영되어 1990년대에 들어 중국과 동남아를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가 크게 각광을 받아 대중에게 동양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90년대 동양풍에 대한 서구인들의 열광은 그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미개한 식민지로서 정복과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자체 문화를 가진 서양과는 다른 대응된 동양이란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즉 19세기 오리엔탈리즘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최근에는 서구문명의 한계를 타개해줄 대안으로 추구하는 동양의 사상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반의 동양풍 선호 현상을 그 이전과 구분하여 NEW ORIENTALISM이라 칭하고자 한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서양의 문화교류 가운데 오래전부터 서구 문화 예술의 중요한 경향이었다. 패션 디자인에서도 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에스닉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아래 한 조류로서 분류했으나 20세기 말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현상과 맞물려 절충주의적·전통주의적·자연주의적·미래주의적인 요소를 보이면서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19세기의 동양풍 선호 현상과 달리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새로운 미학의 발견과 동양을 종속적 비하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미적 표현의 기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NEW ORIENTALISM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며, 21세기 예술의 주된 흐름을 이끌어갈 새로운 조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 해석

의 인식 아래 현대패션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해봄으로써 NEW ORIENTAL FASHION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21세기 예술의 새로운 미학적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패션 테마로서의 NEW ORIENTALISM을 고찰해 보고 이의 연장에서 한국적 미학의 요소가 NEW ORIENTALISM의 흐름 안에서 세계화되면서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기본적 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한국·중국·일본풍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기존이미지의 비교 분석과 1990년대 패션잡지에 발표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NEW ORIENTALISM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식

1)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화

Edward B. Taylor는 '문화는 사회 성원인 인간에 의하여 습득된 지식·신앙·예술·도덕·관습 및 제반 능력과 습관 등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라고 했다.¹⁾ 문화란 여러 하위 문화로 구성되며, 습득·변천·전수되며 통일성을 가지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상·교육·정치·경제·사회 등에서 동·서간, 계층간의 동화 작용을 하며 표출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그 사회의 모던 구조 의식, 몸짓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의된 예술 형태로도 표출된다.²⁾ 또한 각각의 문화는 그 문화가 추구하는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이 있으므로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오늘날 문화라는 용어는 특정 계층의 고급문화만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의미하며,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속화하게 만든 문화를 포함시킨다. 우리들 자신은 바로 생산주도의 모더니즘 시대가 아닌 소비가 주를 이루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장르의 해체와 경계 허물기로 말할 수 있는데 이

것은 다양한 계층의 문화가 서로 갈등을 넘어 공존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에 후반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예술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개념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겨났으며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현상들이 모더니티의 피치 못할 결과의 산물로 간주하며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일원론보다는 다원론을, 독단주의보다는 관용주의를 더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³⁾

포스트 모더니즘 용어는 모더니즘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탈>과 지속한다는 <이후>라는 의미를 함께 지닌 접두어 <포스트>로부터 파생된 말로 <탈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라고 쓸 수 있으나 굳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모더니즘으로부터의 단절과 지속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⁴⁾

Michael Köhler와 Ihab Hassan에 의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용어의 시작은 1934년 문학개념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의 비평가 페데리코 테오니스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시선집(1882-1932)>을 편집하면서 이 책 서문에 <포스트 모데르 시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1950년대 초 Arnold Toynbee는 <역사에 대한 연구> 후반에서 밝힌 바 서구 문명이 19세기 이후 '돌연변이'로 인식되는 전환기를 맞게 되고 우리 시대를 사회적 불안, 세계 전쟁 혁명의 시대로 보고 '포스트 모던' 시대로 명명하기에 이르며,⁶⁾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대두되며 건축분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정립되면서 국제적인 용어가 되었다.

Jean Baudrillard가 말했듯이 소비가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는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의 차원을 넘어서 성적욕망의 충족과 같은 위상을 갖고, 포스트 모던 사회에 와서는 사용가치 보다는 교환가치가 더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즉 포스트 모던 소비사회는 기표로서의 이미지가 기의와는 유리된 '떠다니는 기표'로만 존재한다.⁷⁾ 그리하여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는 상대성·갈등·해석상의 경쟁·균열

과 불연속·다수성·모호성·복합성과 같은 가치들을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⁸⁾

포스트 모던 문화의 특성으로 두드러진 것은 대중매체에 의해 양산되는 무수한 이미지의 생산과 부조화의 조화이다.⁹⁾ Fredric Jameson은 그 특성을 모방의 문화라고 보며 이러한 모방은 혼성모방이라고 불리는 Pastiche의 양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¹¹⁰⁾ 포스트 모던시대에는 주체의 죽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astiche는 원본의 고유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공허한 패러디이며 유머 감각을 상실한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Hebdige는 포스트 모던 문화의 특성으로 디자인과 장식 그리고 대중매체 등에서 보여지는 켈트적인 시도,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이 되면서 겪는 집단적 허탈감, 깊이 없음의 반면, 이미지에 대한 집착, 정치 문화, 실존의 파편화, 주체의 탈중심화, 문화에서의 위계 파괴 등이라고 하였다.¹¹⁾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현재와 과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 즉 어느 측면을 강조하고 억제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으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신구양식의 갈등과 이들 양식에 부여된 관심사항의 갈등으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¹²⁾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문화인식은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데 기여하여 동양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이러한 관심은 90년대에 이르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서양과 다른 대응된 동양이란 인식을 갖게 하였다.

2)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식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모순 안에서 끝없이 유희를 시도하는 역설의 논리로 이것은 '경계에 있기' '안과 밖을 넘나들기' '이중코드'의 '미의 불확정성' 원리를 받아들이며 본질주의적 형이상학의 전통이나 발전적 역사관을 거부한다. 차이의 다양성에 대한 주목, 경계 허물기,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 역사주의와 토속성의 강조, 본질주의적 의미 실질과의 연관 거부등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 지니는 특성은 포스트 모던 사상이 지니는 내적논리를 반영하고 있다.¹³⁾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은 복식에서도 발견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경우, 포스트 모던 복식은 여러 요소들이 기존의 규칙성을 깬 재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기에 주류유행으로써 하이패션과 매스패션이 공존하며, 여기에 다양한 하위문화로서 스트리트 패션이 등장하며 주류패션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¹⁴⁾ 현재에 와서는 세기말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포스트 모던 패션은 세기의 종말, 오프꾸뛰르란 고급문화와 프레타포르테한 대중문화 사이의 확고한 경계의 해체를 의미하며 탈권력에의 의지, 탈중심화 현상으로서의 이성과 감성이라는 양극화의 대립양상에서 융합, 해체, 초월성이란 영원성의 반미학을 추구하고 있다.¹⁵⁾

Evans과 Thornton은¹⁶⁾ 포스트 모던 복식의 특징은 첫째, 새로운 가치관 형성과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안티 패션 및 Avant-garde 형태로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뒤바뀌고, 여성적인 것과 반여성적인 것, 역사적인 것과 민속적인 것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다. 둘째, 성의 차별화를 두지 않고 셋째, 다른 각도에서 인체를 파악한다. 넷째,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다섯째, 기발한 것의 나열로 진지하고 뛰어난 것, 하찮은 것이 절충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명희(1991)¹⁷⁾는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역사성 도입, 토착적이며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 복합적 상징성과 전위성이라 하였고, 송명진(1992)¹⁸⁾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배경에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으로 원시적 특성, 동양적 요소, 동구권 민족복식의 요소를 말하였으며, 김윤주(1998)¹⁹⁾는 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 모던의 특징을 절충주의, 다원주의, 대중주의, 자연주의로 보았다.

기존 내용을 종합하여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미지의 차용과 변용으로 인해 역사적인 복고성을 지닌다. 둘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장르화 현상에 따라 복식 역시 전통적·고정적 스타일을 탈피하고 문화

와 성을 뛰어넘는 다원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 셋째, 역사적 복고성과 이국적인 현상, 양성적인 현상의 조합이 이루어낸 절충적인 성향을 갖는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호성은 문화적 양면가치를 증대시켜 상징적인 모호함을 증가시키는데, 패션에 있어 민족성에 대한 양면가치는 이국적 요소의 수용으로 표현되며 민족이라는 범주에 대해 무경계적인 절충주의까지도 보여준다. 넷째, 지구 생태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환경운동의 전개로 인해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 역시 확산된 자연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문화 읽기의 방식으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의 해석을 받게 되었으며 기존의 것과 다른 NEW ORIENTALISM은 20세기 말 포스트 모던 문화사조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고 복식에서도 오리엔탈리즘은 중요한 표현요소가 되어 20세기 말의 한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Orientalism의 개념

1) Orientalism의 개념

오리엔탈리즘이란, 'Orient' 곧 동양에 관계하는 양식으로, 서양 문화 속에서 그들 문화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동양취미가 등장 할 때 불려지는 용어로서 근세 유럽에 있어서 문학, 예술상의 한 풍조로 나타난 낭만주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를 의미한다. 즉,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기 또는 제재로 삼은 것을 말한다.²⁰⁾

'Orient'는 라틴어 'Oriens'의 파생어로 Occident와 비교하여, '일출' '해가 뜨는 방향' '동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리적 지식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이전의 오리엔트는 극동이라 불리고, 이란·이라크·아라비아를 중동, 동남아시아·동아시아 일대를 극동 또는 원동이라 부르며,²¹⁾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 지역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순수예술 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의미한다.²²⁾

동양은 유럽에 단지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광대하고 풍요하며 오래된 식민지였던 토지이고, 유럽의 문명과 언어의 연원이었으며, 유럽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난 타인의 이미지이기도 했다.²³⁾ 서구인들에게 '동양은 언제나 자아(the Self)에 대비되는 타자(the Other)였고, 상상의 대상이며 정복의 대상'이었다.²⁴⁾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에 의한 동양은 동양의 실체나 본질이 아닌 서구인들에 의해 재구성되거나 표상된 허상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편견과 왜곡된 미화로 표현되기도 하였다.²⁵⁾ 곧,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문화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갖는 언설로써 표현하고 표상하는 것으로,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지아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 방식인 것이며,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인 것이다.²⁶⁾

오리엔탈리즘은 동방에 대한 서구의 지식체계에 서양인의 의식 속에 동양을 여과하며 주입하기 위한 필터로 만들어 졌으나, 단순한 학문적, 정치적 주제가 아닌 지리적인 지식을 여러 분야의 텍스트로 배분(distribution)하는 것이며 관심을 주도면밀한 것(elaboration)으로 만드는 것이고, 서양의 일정한 의지나 목적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인 것이다.²⁷⁾

2) 오리엔탈리즘과 복식

현대의 탈 획일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복식은 새로운 표현의 다양성과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가능성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오리엔탈리즘은 현대에 와서는 세계 각국의 복합된 문화표출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질충주의적 성향과 디자이너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복식에 있어 'Orientalism'은 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의 장식적 요소들이 이미지·색조·문양·재질등의 독특한 복식요소들로 서양복에 도입되어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속에 포함된 함축적 의미와 문화적인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양복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을 시대적 흐름으로 살펴보면, 그 기원은 비잔틴 시대까지 올라가는데 당시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의 의복이 서방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십자군 전쟁은 중동의 이슬람 문화·자수나 아플리케·진보된 직조기술·염료 등이 서방에 전래되는 계기가 되었고, 서양복식에 앵트임이 보급되어 단추가 등장하게 하였고 옷의 햄라인 장식이 유행하게 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신 향로의 개척이나 신대륙의 발견과 병행하여 서구 근대화화를 촉진시켰고, 이런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물품 등이 매개로 작용하였는데,²⁸⁾ 중국 실크는 유럽상인들의 주구매품이 되었고, 아시아에서 수입한 염료와 염색기술은 유럽의 염료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17세기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설립으로 중국식 가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화려한 조끼와 인도복식의 세부장식과 그림, 인도, 중국, 몽고복식 등이 소개되어 졌다.²⁹⁾ 특히 인도에서 전래된 인디엔느(Indiennes)는 귀족들 의상에만 사용되었으나 그 사치성향으로 인해 금령이 내려지기도 했다.³⁰⁾

18세기에는 유럽각지의 상류계급 사이에서 이국취향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중국풍, 터키풍 등이 예술전반의 주제로 나타나는데 특히, 중국풍의 유행은 절정에 달해 중국비단은 모티브와 진기함으로 좋아했고, 프랑스 리용을 중심으로 한 견직물에 큰 영향을 주어 로코코 패션의 특징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³¹⁾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근대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유통의 장이 되어 일반인들에게 이국문화의 존재를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857년 'Liberty House'가 개점하여 일본·중국·인도·페르시아 등지의 동양상품을 수입판매 하였으며,³²⁾ 1855년 일본의 문호 개방으로 인해 서방에 일본풍의 관심을 갖게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오리엔탈리즘은 복식과 조형예술 전반에 존재하게 되는데, 1909년 러시아 발

레단 <Scheherazade> 파리 공연에서 Leon Bakst의 동방풍 디자인은 획기적인 것으로 각광을 받았다.

현대적인 패션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Paul Poiret에 이르러서인데, 1차대전 직후 모로코를 방문하여 영감을 얻어 드레이프를 이용한 터키 스타일, 모로코 스타일, 호블 스커트, 중국풍 스타일의 코트, 기노노풍의 미나렛 튜닉 스타일 등을 디자인하여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동양풍 모드를 유행시켰다.

1922년 투탕카멘왕의 고분발견으로 이집트 문양과 장식이 유행하였고, 1920년대 Erte의 동방풍 디자인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1931년 파리 식민지 박람회는 극동, 아프리카 등의 이국적인 민속풍과 유럽 민속풍 모드를 대량 소개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물자절약을 위해 중국복식의 영향을 받은 長衫이나 좁은 바지형태, 랜턴형의 소매 같은 매우 직선적인 중국풍의 복식이 나타났다.³³⁾

1951년 Christian Dior과 Christobal Balenciaga는 중국풍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만다린 칼라, 직선 여밈의 재킷, 플리 헛 등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1960년대 동방풍의 영향은 미국에서 시작된 히피 저항운동으로 시작되어 1968년 이후 패션계의 관심은 동양의 문화와 과거로 옮겨지게 되었고,³⁴⁾ 파리 오프퍼퓸에서는 동방풍의 유연하고 편한 의복을 내놓은 Yves Saint Laurent을 선두로 이국취향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에는 월남전·석유파동·중국의 문화개방·일본디자이너들의 세계무대 진출등으로 아시아와 동구권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Takada Kenzo는 75년 S/S 파리 컬렉션에서 중국풍의 Mao-a-la-mode로 관심을 모았으며, 동방풍·레이어드룩과 인도풍의 네루룩·중동풍이 새롭게 해석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일본이 경제성장은 Issey Miyake, Takada Kenzo, Yoji Yamamoto, Rei Kawakubo등 일련의 일본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이런 일본디자이너들의 득세는 불규칙성·불완전성·부조화라는 미학의 3요소를 가진 일본풍 디자인이 전세계

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의 종교적인 정신세계를 주축으로 생태학적인 관심과 함께 자연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동양의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을 부각시켰다. 홍콩의 중국 반환으로 인해 Prada를 선두로 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중국풍을 선보였고, Moschino는 가부키 화장을 한 여인이 프린트된 드레스로 일본풍을 재현했으며, Dries van noten은 인도와 중동풍의 디자인을, Karl Lagerfeld는 승려복에서 영감을 얻은 원피스를 선보였다. 이외에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오방색채와 동양적 모티브·토속적인 디자인이 함께 섞인 절충적인 효과로 신비스럽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이신우·이영희·진태옥·홍미화 등 우리 나라 디자이너들이 세계컬렉션에 진출하여 한국적인 스타일을 발표하게 되어 세계무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의 특성

20세기 현대 패션에 표현된 동양풍은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른 동양 미학의 이해의 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전의 오리엔탈리즘과 구분하여 NEW ORIENTALISM이라고 보았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의 현상은 포스트 모던의 문화적 성격으로 이질적 요소를 혼재시키는 절충주의적 표현양식, 과거와 전통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전통주의적 성격, 현대 산업사회의 탈피로서 자연주의적 성격, 미래 대안 제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절충주의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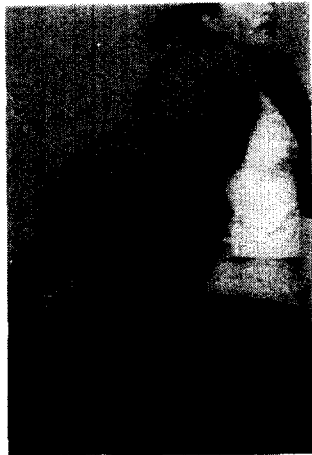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의 모호성은 문화적 양면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민족성에 대한 양면가치는 뉴오리엔탈 패션에 있어 무경계적인 절충주의로 나타난다. 서구 디자이너들이 타문화권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이국취향의 분위기를 연출한다든지, 우리 나라 디

자이너들이 서양복식에 한국적 이미지를 도입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끼리의 복합적 이미지 차용 등 전통적·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과 성을 뛰어 넘는 절충적인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스타일·표현기법·소재 등에서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즉 장식요소들이 단일국적이 아닌 여러나라가 혼재된 디자인의 현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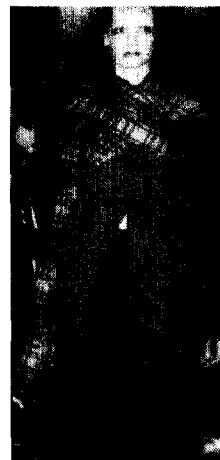
몽고산 양모에 일본어 프린트를 넣은 코트와 새틴 소재의 카프리 팬츠로 연출된 <그림 1>은 이국적이면서 야생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그림 2>는 중국풍의 붉은 색과 검정의 대비·술장식·비즈 장식과 함께 과장된 일본풍 헤어로 다국적 디자인의

느낌을 주며, <그림 3> 역시 중국풍의 매듭 여밈 장식으로 된 상의와 인도 사리의 착장 방식을 이용한 체크 무늬 솔의 코디로 연출되었다.

<그림 4>는 부처도상을 앞면 전체에 프린트한 시스루 소재의 원피스이다. 이것은 동양적 사상의 함축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문양을 패스티쉬적 요소로써 차용함으로써 현대적인 소재와 이국적인 종교이미지 혼합으로 신비로움을 갖게 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특징 중 하나인 풍자를 통해 진리와 의미의 가치를 무의미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의 흑색과 적색의 색채 대비로 이루어진 개끼드레스는 모아레 현상을 나타내 모던함을 추구하고 있고 앞가슴을 받치듯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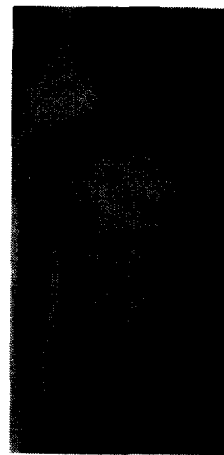
(그림 1) D & G, Bazer 한국판, 99.10



(그림 3) Junya watanabe, collections III, 94·95 F/W



(그림 2) Givenchy, Mode & Mode N° 300, 97·98 F/W



(그림 4) Vivienne tam, collezioni donna N° 56, 97 S/S

며진 술장식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 서구의 이브닝 드레스와 한국적 이미지의 절충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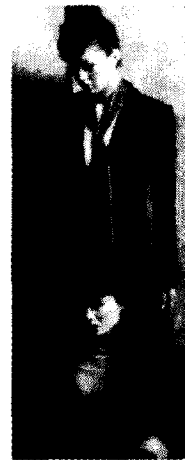


(그림 5) 진태옥, Vogue 한국판, 96.8

문화와 지역간의 절충뿐 아니라 성의 절충적 현상도 나타나는데, 성의 양면가치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여 새로운 '제 3의 성'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림 6>은 색동의 이미지를 현대화시킨 재킷에 과거 남성의 전유물이던 갓을 코디시켜 성의 가치를 전도시키고 있고, <그림 7> 역시 블랙 슈트에 장식적으로 맨 붉은 색 타이가 중성적 앤드로지너스적이면서 오리엔탈라인을 강조한 작품이다.



(그림 6) 이영희, 96·96 F/W 카탈로그



(그림 7) 이정우, Vogue 한국판, 97.8

이와 같이 NEW ORIENTAL FASHION은 단독의 시간이나 공간·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기보다 절충적인 이미지를 선택함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야기하기도 하나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망으로 축약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탈장르화 현상으로써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진다.

2. 전통적인 요소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은 이미지 차용과 변용에 따른 역사적 복고성을 갖는다. 이것은 전통품목의 모티브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 이미지를 변화하고자 하는 역사성으로의 회귀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의 답습이나 모방이 아닌 역사적 전통성의 요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절충적인 방안으로 새로움을 창출하는 패스티쉬이다.

<그림 8-左>는 중국 전통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넥라인에 청색테이프를 둘러 고리단추구멍 처리를 한 레이스 소재의 블라우스이다. 중국 치파오의 이미지 차용과 현대적 소재의 어울림으로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화하였다. <그림 8-右>는 99 S/S에 Dior이 중국 인민복 모티브를 여성적인 실루엣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그림 9>는 고대 중국의 민화를 컴퓨터 그래픽 처리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의상에 접목시켜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한다.



(그림 8) 루비나, Vogue 한국판, 97.4(左)
Christian Dior, Gap V' 18, 99. S/S(右)



(그림 10) Moschino, Vogue 한국판, 97.2



(그림 9) 김혜정, Time & Space 패션전, 95



(그림 11) Issey Miyake, Vogue 한국판, 97.2(左)
Issey Miyake, Elle 한국판, 98.11(右)

Moschino는 일본 전통의 가부키극을 이브닝 드레스에 옮겨 회화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그림 10). Issey Miyake는 일본 사무라이 스타일을 마소재로 표현하여 새로운 미를 추구한다든지(그림 11-左). 한국 전통의 민화를 그 특유의 플리츠 플리츠라인에 접목시켜 전통적인 요소를 문화 절충적인 방안으로 자연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그림 11-右). Gaultier 역시 일본 전통 기모노를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시켜 퓨전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그림 12)

우리 나라 디자이너들의 경우도 '패션과 전통'이라는 이중구조를 다양하고 조화롭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를 이용한 이신우·



(그림 12) Jean Paul Gaultier, Collections III, 99 S/S

신윤복의 미인도를 이용한 진태옥·전통 한복 라인을 그대로 이용한 이영희 등을 선구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전통적 요소를 현대패션에 접목시키고 있다.

조각보의 모티브를 현대적 감각으로 접목시킨다든지, 한복 치마만으로 이브닝 드레스를 연출하기도 하였고, 당의의 곡선을 살려 캐미솔 톱으로 응용하여 핫팬츠와 조합함으로써 스포티한 감각으로 나타낸다든지<그림 13-左>, 치마·저고리의 라인을 응용하여 아방가르드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였다<그림 13-右>.



(그림 13) 설윤형, Elle 한국판, 98.1(左)
심상보, Vogue 한국판, 99.7(右)

또한 다양한 상업성 위주의 대중매체에서도 복고적인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새로운 미를 추구하는데, <그림 14-左>는 동양적 영감의 독특한 스타일과 테크노가 가미된 음악의 선두주자인 독일 여가수 비옥의 <호모제닉> 앨범의 커버이다. Macqueen이 아트 디렉터로 참여한 이 앨범의 커버디자인은 일본 전통 기모노의 재현과 가부키 스타일의 메이크업·중국 唐 시대의 입술화장·일본풍 헤어스타일·버어마 여인들의 전통적인 목걸이 장식 등으로 연출되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본 전통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초현대적인 사이버적 분위기를 갖게 한다.

<그림 14-右>는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1>에서 Trisha Biggar가 디자인 한 아마달라의 복장으로 기모노의 재현과 더불어 진주로 수놓아진 패널이 달린 머리장식은 SF 영화에서 표현된 오리엔탈 패션의 새로운 이미지이다.



(그림 14) 비옥의 앨범<호모제닉>, Elle 한국판, 98.7(左)
<스타워즈1>의 아마달라의상, Vogue 한국판, 99.5(右)

이러한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동양적 이미지는 미래에 대해 동양의 정신이나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대안을 찾으려 하는 최근의 사회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자연주의적 요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구 생태환경의 보존이라는 생태학적 관심의 고조로 인한 자연주의적 경향은 현대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과 동경은 바로 현대인들의 생존 조건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며, 물질문명에 구속된 인간의 자유를 표방하려는 것이다.

NEW ORIENTALISM에서 자연주의적 요소는 색채·소재·문양·실루엣 등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포스트 모던적인 절충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문양을 프린트함에 있어, <그림 15>는 중국 치파오풍 원피스에 사생화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한 폭의 동양화를 떠올리게 하며, <그림 16>은 기모노를 변형한 디자인에 국화문을 반복적으로 시문하여 흑·적의 대비가 문양과 어우러져 회화적인 느낌을 갖게 한 Yohji Yamamoto의 작품이다. <그림 17>은 베이직한 화이트 블라우스와 팬츠 위에 한국 전통의 민화를 이용하여 한 폭의 동양화를 옮겨 놓은 듯한 프린트로 된 에이프런을 레이어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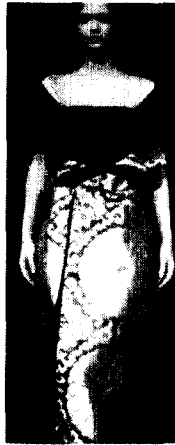
소재 측면에서도, 가공되지 않은 듯한 천연 양가죽으로 된 Gaultier의 코트<그림 18>, 노방을 이용하여 저고리 라인과 무지기치마의 이미지를 현대화



(그림 15) Ungaro, Mode & Mode N°300, 97·98 F/W



(그림 18) Jean Paul gaultier, Collection III, 94·95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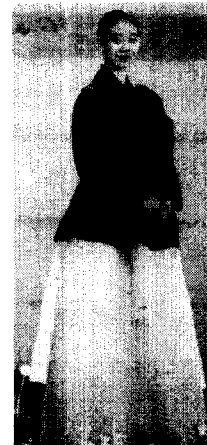
(그림 16) Yohji Yamamoto, Collections II, 95 S/S

한 <그림 19>등에서 때묻지 않은 자연 천연의 미를 엿볼 수 있으며, 나비 자수가 프린트 된 대나무로 잔 뷔스티에 <그림 20>는 동양적 소재와 디테일을 서양의 실루엣과 매치시켜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동양에서는 백색을 자연에 귀의하는 색으로 보았는데, 원색에서 탈피한다는것은 無에서 有가 나오는 도교적 사상을 의미하기도 한다.³⁵⁾ 일찍이 1989년 S/S에 Hanae Mori가 선보인 <그림 21-左>는 실크 머슬린에 수묵 느낌의 일본어 프린트가 된 것으로 흑백의 사실적 표현이 유연함을 느끼게 하고, <그림 21-右>는 광택 소재 위에 서예가 류재학의 작품을 프린트하여 흑백의 조화로 인한 여백의



(그림 17) 설윤형, Vogue 한국판, 99.5



(그림 19) 박원경, 세종대 개교 50주년 의상전 97.10



(그림 20) 이상봉, Elle 한국판, 98.1



(그림 21) Hanae Mori, palais Galliera(左)
최복호, Elle 한국판, 96.2(右)

미를 갖게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되었다. 이렇듯 단아한 색상의 조화와 유연한 여백의 미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탈피하고 자연을 동경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4. 미래적인 요소

2000년에 이르러 세기말과 세기초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미래 대안적인 패션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패션에서의 NEW ORIENTALISM 역시 미래적이고 미니멀한 트렌드와 같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복합 절충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추

구야말로 NEW ORIENTALISM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발전시켜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22〉의 심플한 원피스는 가죽소재에 동양적 문양을 금속 자수시켜 테크노적인 감각을 연출하고 있는데, 패션에 사용된 동양 문자는 동양의 추상적 바탕이 되는 것으로 내면의 정신세계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 〈그림 23〉은 한국적 문양의 반복 프린트 기법으로 유택한 이미지를 나타낸 원피스로 See-Through 소재와 오리엔탈리즘의 실용화를 제안한 디자인이다.



(그림 22) Gianni versace, Bazar 한국판, 97.9



(그림 23) 설윤형, Vogue 한국판, 97.2

〈그림 24〉의 상의에 프린트된 한자 '無'는 글자 그대로 무의미적인 중국적 모티브의 차용이나, '無'는 무의미의 이면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우주만물의

함축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팬츠에 프린트된 인체의 앞뒷면을 뒤바꾸어 보이게 하는 우주적인 문양들은 굴곡에 의한 형태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소재 사용과 함께 미래주의적 감각과 오리엔탈 감각의 복합 절충적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4) Oh Ya, Collection II, 97 S/S

또한 동양에서는 물을 H₂O의 구성인자가 우주적인 의미에서 항상 그 공간 속에 존재하며 만물 역시 이러한 원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순환의 형성원리에 따른 불변의 법칙이라 하였다.³⁷⁾ 현대 패션에서 물의 의미는 패션외의 이벤트에서도 사용되어 그 상징적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25>는 물을 이용하여 패션 쇼를 연출한 Macqueen의 작품으로 See-Through 소재에 용문을 자수하여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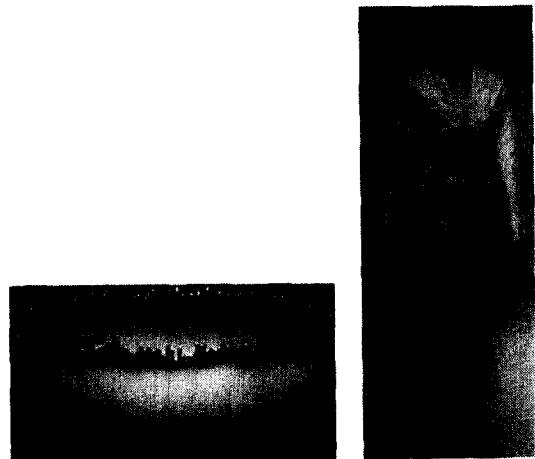


(그림 25) Alexander Macqueen, Collezioni Donna N°31

양적 이미지를 표출하면서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내보여 원시자연의 분위기와 미래적 감각의 매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26-左>는 Jay Musler의 '도시풍경'이라는 작품으로 투명 글라스를 착색시킨 진홍의 주발과 불규칙하게 커트된 암색의 상부와의 대비로 작가의 휴머니즘이 표현된 것이다.³⁸⁾ 이러한 이미지는 <그림 26-右>에서도 유사하게 느껴진다. 지고리 라인을 변형시킨 듯한 상의와 치마에 표현된 번지는 듯한 수목 느낌의 프린트가 신 소재의 투명한 광택과 함께 우주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미래세계로 갈수록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요소들은 예술과 문화의 표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미래사회에서 휴머니즘의 표현 양상은 다양한 모습일 것이나 인간의 불안한 내면과 기계문명과 조화를 모색하는 미래적 휴머니즘의 방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던 <그림 14> 역시 대중매



(그림 26) Jay Musler<도시풍경>, 아르누보 유리명품전, 중앙갤러리, 1984(左)
Shmura, Collections III, 99 S/S(右)

체 속에서 전통을 모방한 미래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 상호 절충적인 표현의 방법을 느낄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9세기의 오리엔탈리즘에서 간과하

었던 동양미를 20세기의 오리엔탈리즘이 재해석하여 그것을 패션의 주변적, 부차적 요소로 머물게하지 않고 현대 패션의 주된 표현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표현양식을 NEW ORIENTALISM으로 명명하였다. 현대 패션에서 새로운 표현 요소와 해석과 상징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NEW ORIENTALISM은 현대 패션에서 절충주의적 요소·전통주의적 요소·자연주의적 요소·미래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NEW ORIENTALISM은 20세기 모더니즘의 대안으로 21세기 예술의 주된 흐름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다원화와 절충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화 현상과 조류를 함께 하는 현상인 만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특성과 유사점을 갖게 된다. 현대 패션이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성격으로 세분화시키던 작업들이 20세기말부터 분해에서 통합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한데 어우러지는 절충적 성격을 밑바탕에 두고 새로운 표현방법으로써 NEW ORIENTALISM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NEW ORIENTALISM의 특징으로 첫째, 절충주의적 현상이다. 동양적 소재와 서양식 패턴·고대 실루엣과 현대적인 색채·오리엔탈적 요소와 사이버의 만남, 이러한 현상은 퓨전이라는 경향의 유행과 함께 지역과 시간을 뛰어 넘는 절충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주의적 현상으로, 과거 동양복식의 이미지가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롭게 표현되었다. 전통복식의 라인을 현대적 소재와 병합하거나, 전통적 문양의 재해석, 전통복식의 착장방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연출방법·전통문화 이미지의 사실적 표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 문화 속에서도 복고적인 이미지를 초현대적인 감각으로 연출되었다.

셋째, 자연주의적 현상으로, 인간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과 동경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었다.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과 천연의 소재 사용, 특히 문양에서 사생풍의 도안이나·꽃문양·수목기법등을 이용하여 자연적 정서를 갖게 하였고, 단순한 흑백의 조화가 주는 심성의 고요함이나 복잡한 정서를 순화시키는 여백의 미 그리고 원시를 동경하는 원색의 색채대비를 통해 자연적인 감정을 더 고취시키며 이것이 20세기

적 감각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미래주의적 현상으로, 동양적인 이미지 요소가 미니멀하고 사이버적인 감각으로 절충되어 나타났다. 세계 디자인은 이제는 전 우주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표현추구로 나타나고 있고, 토착적 이미지를 세계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또 미래 대안적인 패션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대 디자이너들이 특히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NEW ORIENTALISM에서 미래적인 요소는 신소재등과 조화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로 보인다.

오리엔탈패션을 구성하는 주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중국·일본풍이 대다수이며, 한국적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인식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90년대 이후 한국적 성격을 가진 컬렉션의 개최와 한국디자이너들의 세계진출, 한국복식미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미와 복식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세계의 패션 업계에서 한국디자이너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화산업으로서 패션 산업의 가치와 필요성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 한국 패션산업이 세계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 패션의 동향과 전망을 정확히 짚어내야 하고, 현재 동양풍의 선호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패션사조에 부응하여 한국적 요소를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가일층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김기삼·전정태 공저, 사회학의 이해, 삼영사, 1997, p.77.
- 2) 이정호,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읽기, 서울대 출판부, 1998, p.2.
- 3)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청하, 1997, p.15.
- 4) 김혜정·임영자, 포스트 모더니즘 의류광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21호, 1993, p.104.
- 5) 김옥동, op. cit., p.17.
- 6) 서성록,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진사, 1992, pp.174~177.
- 7) 이정호, op. cit., p.166.
- 8) 김옥동, op. cit., p.303.
- 9) 이정호, op. cit., pp.22~40.

- 10) Ibid, p.159.
- 11)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p.212.
- 12) 윤호병 외 옮김. Hal Foster, 반미학, 현대미학사, 1994, p.19.
- 13) 김혜숙 · 김혜련, 예술과 사상, 이화여대 출판부, 1998, p.309.
- 14)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op. cit., p.245.
- 15)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연구(Ⅱ), 한국복식학회, 제 38호, 1998, p.319.
- 16) Caroline Evans & Minna Thornton, Women & Fashion, Quartet Book, NY, 1989, pp.59~80.
- 17)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18) 송명진 · 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18호, 1992.
- 19) 김윤주,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 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20) 동아원색대백과사전, 제 21권, 동아출판사, 1983, p.286.
- 21) 이재성 역, 長澤和俊,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민족사, 1994, pp.201~202.
- 22) 이승환, 오리엔탈리즘을 해부하라, 전통과 현대, 겨울호, 1997, p.206.
- 23) 박홍규 역, Edward W.Said,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7, p.13.
- 24) 권유진, 오리엔탈리즘의 패션체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p.2.
- 25) 이승환, op. cit., pp.207~218.
- 26) 박홍규 역, op. cit., pp.13~16.
- 27) Ibid, pp.23~33.
- 28) Richard Martin & Harold Koda, ORIENTALISME, NY, 1994, pp.9~15.
- 29) 김윤희,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17.
- 30) 박은주,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43호, 1999, p.263.
- 31) 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7.
- 32) Guillermo De Osma, Fortuny: The Life&Work of Mariano Fortuny, NY, Rizzoli, 1994, p.92.
- 33) 김윤희, op. cit., p.24.
- 34) 간문자, 1960년대 저항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복식학회, 제 30호 1996, p.158.
- 35) 임영자,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30호, 1996, p.267.
- 36) 임영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물의 의미, 한국복식학회, 제 43호, 1999, p.63.
- 37) Ibid, p.55.
- 38) 아르누보 유리명품전, 중앙갤러리 개관 기념, 1984, p.122.